

하얼빈 감동 잇는다...전남, 동계체전 첫날 금빛 질주

바이애슬론 혼성계주·스키 알파인 강다현·크로스컨트리 이윤주 금 크로스컨트리 조다운·전다경 은메달 획득도...전남, 종합 8위 목표

제106회 전국동계체전이 18일 강원도 평창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전남 선수단은 대회 첫날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선전했다.
강다현(여수삼일중 3년)은 이날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스키 알파인 대회전 여자부 결승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대회에서 회전과 복합에서 2관왕을 차지했던 강다현은 이날 한층 여유로운 모습으로 1분 11초 13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여자부 정상에 올랐다.
전남 바이애슬론팀도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혼성계주에서 전남은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스타로두비치 알렉산더, 티모페이 랍신, 예카테리나 압바꾸모바, 함해영 순으로 계주 경기를 펼친 전남은 1시간 15분 24초 3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바이애슬론 혼성계주 2위에 오른 전북(정민성·김하빈·고은정·이현주)은 전남에 3분 06초 7 뒤진 1시간 18분 31초 0을 기록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도 전남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윤주(다시초 6년)는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여자부 클래식 2.5km에서 9분 19초 4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기대주' 조다운(화순제일중 3년)은 같은 곳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여자부 클

래식 5km 경기에서 17분 55초 0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지난해 열린 105회 대회까지 3년 연속 크로스컨트리 5관왕에 등극했던 조다운은 이날 경기 중 내리막길 커브 코스에서 앞서 넘어져 있던 선수와 부딪히면서 1위 강원도 이하빈(진부중 2년·17분 53초 6)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크로스컨트리 여자부 클래식 5km에서는 전다경(전남체고 1년)이 18분 09초 4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전남의 메달 레이스에 힘을 보탤다.
크로스컨트리 남자부 클래식 2.5km에서는 최지호(화순초 6년)가 8분 33초 4를 기록하며 동메달을 따냈다.
첫날부터 값진 성과를 거둔 전남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8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 첫 출발이 좋은 내일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남 바이애슬론팀이 18일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동계체전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왼쪽부터 티모페이 랍신, 함해영, 예카테리나 압바꾸모바, 스타로두비치 알렉산더. <전남도체육회 제공>

차준환 vs 원윤종...IOC 선수위원 후보 검증 받는다

체육회, 26일 비공개 면접

내년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기간 선출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출사표를 올린 차준환(23·고려대)과 원윤종(39)이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의 검증을 받는다.
차준환과 원윤종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체육회 회의실에서 평가위원회가 주최하는 비공개 면접을 본다.
둘은 한국인 IOC 선수위원 후보로서 각자의 비전을 설명하고 평가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선수위원회 및 국제위원회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를 아울러 9명의 위원으로 평가위를 구성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수위원회(위원장 신현우)가 27일 국내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체육회는 이렇게 선정된 최종 후보 1명을 다음 달 14일 이전까지 IOC에 통보할 계획이다.
IOC 선수위원 후보 경쟁에 나선 차준환과 원윤종은 한국 동계 종목에서 괄목할 성적을 낸 스타 선수들이다.
차준환은 남자 피겨 스케이팅 에이스로 올해 1월 토리노 동계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에서 남자 싱글 동메달을 딴 데 이어 이달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원윤종은 한국 봅슬레이의 간판으로 활약해왔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대표팀의 파일럿으로 4인승 은메달을 이끌어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만난 피겨스케이팅 차준환(왼쪽)과 봅슬레이 원윤종. /연합뉴스

봅슬레이 메달 주인공이 됐다.
둘은 지난 1월 24일 하얼빈 아시안게임 선수단 결단식 때 만나 선의의 경쟁을 다졌다.
차준환은 IOC 선수후보로서 경쟁력에 대해 "해외에서 오랜 기간 훈련한 만큼 의사소통은 자신 있다"며 영어 구사 능력을 꼽았고, 원윤종은 "13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3번의 올림픽에 참가했다"며 경험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역대 한국 출신 IOC 선수위원은 2명으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처음으로 선수위원에 선출됐다.
역시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은 2016년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기간 8년간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화끈한 공격력... U-20 대표팀, 한일전·조별리그 전승 도전

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20세 이하(U-20) 아시안컵 8강 진출을 확정된 이창원호가 한일전에서 조별리그 전승에 도전한다.
이창원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20 축구대표팀은 20일 중국 문화체육센터 경기장에서 일본을 상대로 대회 조별리그 D조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앞서 시리아(2-1), 태국(4-1)을 차례로 물리쳐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한일전에서 패해도 조 2위까지 오르는 8강행을 확정할 상태다.
그러나 한일전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인 만큼 최선을 다해 승전고를 울려보겠다는 각오다.
2020년대 들어 성인대표팀은 물론이고 각 연령

별 대표팀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패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어 이번 한일전에서 승리한다면 더욱 값진 성과가 될 터다.
이전 연령대 패배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도 이번 승리는 필요하다.
한국은 2023년 태국에서 열린 AFC U-17 아시안컵 결승에서 일본에 0-3으로 패했다. 당시 대표팀에 홍성민(포항), 윤도영(대전), 진태호(전북) 등 이번 이창원호 선수 상당수가 포함됐다.
한일전에서 이기면 대표팀은 19년 만의 조별리그 전승 기록도 이룬다.
한국은 인도에서 열린 2006년 대회 이후로는 U-20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전승을 거둔 적이 없다.

2경기에서 6골을 뽑아낸 화력이 이창원호의 강점이다.
태국전에서 멀티골을 뽑아낸 '유리파' 김태원(포르티모넨스)을 필두로 백민규(인천), 박승수(수원), 성신(부천), 윤도영(이상 1골) 등 여러 공격수들이 골맛을 봤다. 강력한 수팅까지 보유한 장신 스트라이커 하정우(성남)도 매섭다.
특점포의 파괴력을 더욱 끌어올리면서 간혹 집중력이 떨어졌던 듯한 모습으로 몇 차례 위기를 자초한 수비라인을 잘 정비한다면 일본전 승리 가능성은 커진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13년 만이자 통산 13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안 스윙' 혼다 LPGA 타일랜드 개막

20일 태국서 고진영·양희영·유해란 등 출격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아시안 스윙'이 20일 태국에서 시작한다.
LPGA 투어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아시아 지역에서 대회를 연다.
올해 춘계 아시아 시리즈는 20일 태국 춘부리에서 개막하는 혼다 LPGA 타일랜드(총상금 170만 달러)로 막을 올린다.
이 대회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HSBC 월드 챔피언십(총상금 240만달러), 중국에서 블루베이 LPGA(총상금 250만달러)가 3월 초까지 이어진다.
가을철 아시안 스윙은 10월에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을 돌며 진행될 예정이다.
태국 파타야의 시암 컨트리클럽 올드코스(파72·6632야드)에서 열리는 혼다 LPGA 타일랜드 올해 대회에는 고진영과 양희영, 김아림, 김세영 등이 출전한다.
고진영은 올해 앞서 열린 두 차례 대회에서 4위와 준우승 등 좋은 성적을 냈다.
2023년 5월 파운더스컵 이후 우승이 없는 고진영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1년 9개월 만에 우승 소식을 전할 수 있다.
시즌 개막전으로 열린 1월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챔피언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김아림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11월 롯데 챔피언십에서도 정상에 오른

김아림은 올해 개막전 우승 이후 열린 파운더스컵에는 불참, 이번 대회를 제패할 경우 출전 대회 기준으로 2개 대회 연속 우승이 된다.
이 대회 우승 후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바로 양희영이다.
양희영은 이 대회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 세 차례나 우승했다. 이후 2021년 3위, 2022년 4위 등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내며 태국 대회와 좋은 인연을 이어왔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공동 3위에 오른 김세영과 최혜진, 공동 5위를 한 김효주, 공동 9위였던 유해란 등도 주목할 선수들이다.
72명이 출전해 컷 탈락 없이 나흘간 경기하는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자 패티 타와타나깃(태국)을 비롯해 올해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교포 선수 노예림(미국), 15일 끝난 레이디스 유러피언 투어(LET) 사우디아라비아 대회 우승자 지노 티피칸(태국) 등이 출전한다.
또 인뤄닝(중국), 릴리아 부(미국), 사소 유카(일본) 등 세계 랭킹 상위권 선수들이 나오고 올해 LPGA 투어 신인상 후보로 지목되는 다케다 리오(일본)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회에 출전하는 신인은 다케다 외에 쌍둥이 자매인 이와이 아키에, 이와이 치사토(이상 일본) 3명으로, 이들은 모두 스폰서 초청 선수 자격으로 나온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Cello Moments'

일시 : 2025-02-21(금)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탄소중립, 이끼로 말하다! : 원예복지협동조합

일시 : 2025-2-21(금)-2025-3-23(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